

유럽 문예재단, 광주미술과 연계 속도 낸다

CULTURE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포르투갈 리스본 거점 AAmA 전시 교류 등 착수 국제시각문화협회 통해 지역미술 접촉면 넓혀가 루오치 주석, 윤의 시립관장 등 면담...ACC 방문도

유럽 연고로 활동 중인 해외문화예술재단과 광주 미술의 연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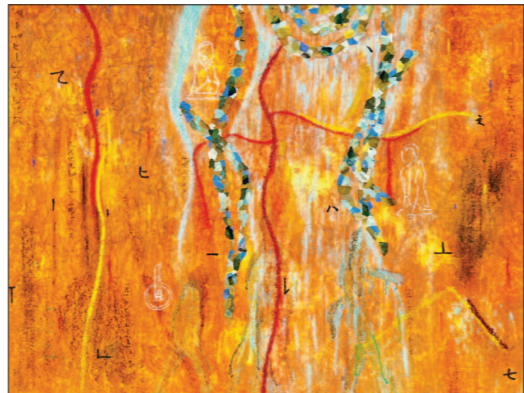
16일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에 따르면 중국 설립 재단으로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AAmA와 전시 개최 및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점차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AAmA는 아시안 아프리카 메드 아메리카스의 각 앞글자를 딴 것으로, 중국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어 재단이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다는 설명이다.

AAmA가 광주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는 이 재단에서 기획과 진행을 맡는 등 주석으로 활동 중인 루오치(Luo, Qi)가 광주와의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노정숙 작가가 상호 신뢰 속에 하나 하나 연계 지점들을 밟아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루오치는 항저우 소재 중국미술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한 인물이며, 2년 전에 서울대 박물관 초대로 개인전을 열었는데 주변에서 전시를 가면 광주의 노 작가를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고서 서울에 들어온 길에 광주에 내려와 노 작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루오치는 중국미술대학에서 제1세대 한국 유학생들을 다수 가르쳤을 만큼 한국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재단 주석 외에 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84개국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며, 지난해만 8개국 순회전시



광주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에 출품된 루오치 작 '둔황' (Dunhuang Mural_01)

를 연 바 있다.

루오치는 서울대 박물관 초대개관전 당시 화순 도곡에 있는 노 작가의 스튜디오(작업실)를 방문 하면서 두 사람 간 인연이 시작됐다.

노 작가에 루오치를 소개한 장본인들로 포르투갈 국적의 몽골계 작가인 자자와 몽골 칸 아트 갤러리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솔롱고가 루오치에 소개했다고 한다. 이 두 작가 역시 AAmA와 연계돼 이미 활동을 펼치고 있었기에 루오치에 노 작가를 소개할 수 있었다.

이중 솔롱고는 광주와 다수 교류를 했던 인물이어서 광주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작가로 꼽힌다. AAmA 학회 소속 국내 회원으로는 노정숙 작가를 포함해 서울대와 경북대 등 대학 교수 2명과



유럽 연고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재단인 AAmA와 광주미술의 연계가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하정음미술관을 찾은 루오치(맨 왼쪽)가 전시를 관람한 뒤 딸인 루오티안과 노정숙 작가, 변길현 하정음미술관 관장과 기념촬영 모습.

함께 3명만 가입돼 있다.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당시 노 작가에게 전시 제안을 했다는 귀띔이다. 이렇게 해서 노 작가의 중국 항저우 전시가 성사됐다. 노 작가의 전시는 지난 12일 개막돼 오는 4월 30일까지 항저우 인터네셔널 탈렌트 클럽 컬처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AAmA 전시와 학회에 보낸 작품, 원본판화, 사진들이 영상과 함께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은 판화 15점과 디지털영상아트 13점, 미디어 아트 2점 등이다.

노정숙 작가는 항저우 전시에 대해 기존 판화에 기술과 미디어, 창의 관련 방향성을 확대한데다 디지털미디어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 구축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루오치는 올해 예정된 항저우 전시 후에 노 작가의 작품을 '제4회 국제디지털아트 트리엔날레'에 출품, 소개할 예정이다.

루오치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방문 때 윤의 광주시립미술관장과 임종영 학예실장, 변길현 하정음미술관장 등을 만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를 망라해 하정음미술관 청년작가초대전 등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루오치는 윤의 관장 등과 만나 광주와 교류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광주미술과 AAmA와의 연계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다 루오치의 딸로 중국 태생이지만 독일에서 미술공부를 한 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를

연고로 활동 중인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루오티안(Luo Tian)의 전시가 지난 6일 개막돼 18일까지 광주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해외작가초대작가전으로 열리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루오티안은 이 전시에 둔황 모자이크 벽화와 불교미술에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출품해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는 코로나 19 전후 해외작가초대전으로 프랑스 작가전 7회, 필리핀 작가전 1회, 몽골 작가전 6회, 미국작가전 2회 등을 각각 진행했다.

이처럼 AAmA와 광주미술과의 접촉면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심청가'

야문화전당, 10주년 레퍼토리 '두 개의 눈' 21~22일

심학규 시선으로 풀어내...미디어아트 결합 확장 무대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낸 미디어아트 공연이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ACC 대표 레퍼토리 공연 '두 개의 눈'을 오는 21~22일 예술극장에서 연다.

지난 2018~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두 개의 눈'은 2021년 ACC 초연 후 2021년 국립극장 여우락(樂) 페스티벌 개막작,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K-무형유산페스티벌 개막작, 2023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단극장 초청공연, 2024년 키르기스스탄 건국 100주년 기념 초청공연, 오는 2026년 대만전

통극장 초청공연(예정)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도 활발히 이루어지며 글로벌 예술 교류를 견인하는 ACC 대표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심청가'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눈'은 기존 효녀 심청이 주인공이 아닌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눈 먼 심학규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탐구한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된 형태로 펼쳐질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연출과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심학규가 경험하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며 기존의 전통 판소리 형식을 한

층 확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가로 12m, 세로 22m 크기의 대형 LED스크린과 키네틱 레이저가 조화를 이룬 무대연출은 배우들의 입체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하며 드라마의 극적인 몰입을 유도한다. 또 전통 마당놀이 형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해 무대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실시간 상호작용 기술을 도입해 관객이 공연의 일부가 되는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미디어아트와 음악을 결합해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무도(MUTO)와 전통 판소리의 표현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창작과 실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입과손스튜디오의 공동연출을 통해 전통 판소리의 서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더욱 감각적인 무대를 구현했다.

공연 시간은 총 70분으로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ACC 누리집 또는 전화(1899-5566)로 하면 된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

고선주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전통과 현대 있는 자유로운 풍경 '넘실'

배철지 공예·이영실 서양화전 진도 여귀산 미술관

미술관이 귀한 전남 진도 여귀산 미술관에서 황철공예 분야로 활동 중인 안도 출생 배철지 작가와 서양화 작업에 매진해온 광주 출생 이영실 화가의 교차 전시가 마련돼 잇따라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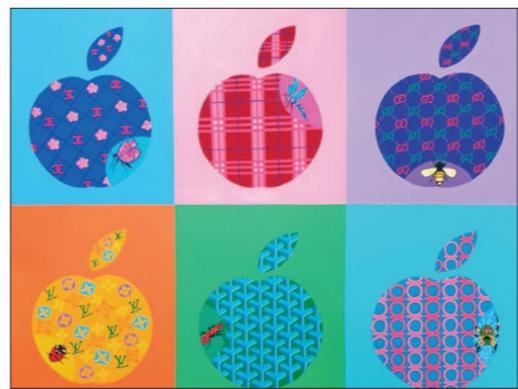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감각 작품을 동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 배철지 작가 작품은 지난 2월 10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열리며, 이영실 화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는 지난 1일 개막, 4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배 작가의 전시는 '홀리다. 좌절하다. 철하다'라는 타이틀로 황철과 청자 플라보, 황철 탈향아리를 포함한 공예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배 작가가 구사하는 황철은 서남해안에 자생하는 고유종으로

황금빛 비색이 탁월하고 내열·내구성이 강해 예부터 특수 도료로 사용된다. 신라시대에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교역 물품 중 최고로 꼽혀 황철이 금보다 비싸게 거래가 됐을 정도이다.

앞서 오랜 시간 황철에 매혹돼 고문헌을 통한 황금빛 안료의 보존 방법 등을 연구해온 작가는 2019년 완도군이 주도한 경인미술관 황철공예전 이후, 현재 여귀산 미술관에서 네 번째로 그 성과와 작을 선보이고 있다.

또 이영실 작가의 전시는 '제17회 가장 도시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각지고 건조한 도시인의 내면과 일상을 그리고 있지만, 분홍에서 파랑을 오가는 파스텔톤 혼합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다가온



이영실 작 '사과'

다. 작가는 대부분 사각 건물에 갇힌 도시인들이 자신조차도 때로 가구처럼 애완동물처럼 소품이 된다는 시각이지만 화면에서는 단순화된 소재와 감각적 색채를 통해 우리가 잃어가는 꿈과 환상, 동화적 서정을 읽을 수 있다. 그 소품은 일반적 언어보다 감각적이라는 설명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인간의 깊숙한 속내...따뜻한 삶의 온도 기원

고성만 첫 산문집 '다행이다, 내가 더 사랑해서' 출간

그를 생각하면 국어교사와 시인, 시조시인 등이 스쳐 지나간다. 30여 년 동안 현직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후 학교를 떠나 자신만의 창작적 시간을 펼쳐온 고성만 시인이 이번에는 시집이 아닌, 첫 산문집 '다행이다, 내가 더 사랑해서' (시인의일요일 7월)를 펴냈다.



고성만 시인

등단 후 27년 동안 여덟 권의 시집을 출간하며 시를 통해 순수에 대한 동경과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웃을 위로해 왔다. 시인의 첫 산문집에는 30여 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왔던 선생님으로서 시작 은유와 가르침의 포즈에서 벗어나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의 깊숙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표제가 암시하듯 그는 온기가 빠져나가는 현시대를 목도하면서 다시 따뜻한 삶의 온도를 꿈꾸고 있는 듯하다.

그의 산문집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만한 강렬한 지혜나 영혼에 균열을 낼 정도의 깨달음을 전해주지는 않지만 철저히 자기 삶에 대한 반성에서 모든 것을 풀어간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차마 내보일 수 없었던 삶의 상처와 비밀 그리고 항상 뒤통에 깨닫게 되는 사랑과 성찰을 비 오는 날의 5교시 국어 시간처럼 술술 풀어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번 산문집은 시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웃음이 슬며시 새어나오는 풍경에서부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장면까지를 지나다 보면 사랑과 그리움, 미안함과 부끄러움, 기쁨

과 슬픔 등 삶의 페이지들이 채색된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마음의 결까지 모두 마주할 수 있다.

산문집에는 고향의 부모님을 떠나 도시로 전학 온 심대 시절에 겪었던 따돌림과 무차별 폭행의 상처를 비롯해 '비극'이 '축제'처럼 다가왔던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 일남 소녀의 외아들로 대학 시절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지 못했던 시대적 부채감, 손발이 마비돼 고기 먹지 못해 허미해져 가는 누나에게 미리 쓰는 이별의 편지 등이 언급된다.

고성만 시인은 1998년 '동서문학'과 2019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으로 등단. 시집 '올해 처음 본 나비'와 '슬픔을 사육하다', '햇살 바이올린', '마네킹과 퀘서비스맨', '잠시 앉지도 되겠습니까', '케이볼카 타고 달이 지나간다', '파싸 있어요?', 시조집 '파란, 만장'을 발간했다.

하모니카 선율로 만나는 대중가요 명곡들

GAC 기획공연 포커스, 내달 17일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GAC 기획공연 포커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가 오는 4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국내 유명 가수들의 명곡을 만들어 내며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어온 작곡가 김형석과 아시아 태평양대회, 전일본 대회, 세계 하모니카대회에서 우

승을 차지한 하모니스트 박종성이 펼치는 프로젝트 '그대, 다시'는 김형석의 수많은 명곡 가운데 박종성이 엄선한 곡들을 직접 편곡, 재해석해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등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만나볼 수 있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고선주 기자 alsqsd194@gwangnam.co.kr